韓학자, 南宋불상을 '신라'로 바꿨다



중국서 발견된 통일신라불상. 남송 시대 조성으로 중국은 추정했지만, 최응천 교수의 연구가 이를 바꿨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박물관장)는 2009년 3월 중국과 일본학자들과 함께 중국 저장성 지역 공동연구조사를 떠났다.

마지막 일정에 최응천 교수는 닝보(寧波)시 외곽에 자리한 닝보박물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최응천 교수는 중국 불상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아미타불상을 만났다. 화려한 광배, 균형 잡힌 대좌와 잔잔한 미소의 상호는 우리네 불상이었다, 하지만 박물관은 불상의 조성연대를 남송시대로 평가하고 있었다.

해당 불상은 1982년 6월 닝보시 천봉탑의 지궁(地宮)을 발굴하던 중 출토된 것으로 불상을 봉안한 은제 불전에 남송 소흥 14년(1144)에 제작했다는 명문이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박물관은 남송 작품으로 추정한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응천 교수는 '장보고 시대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양상과 특성' 이라는 논고를 2010년 발표했다. 그는 해상교류 지점으로서 닝보를 소개하며 자신이 발견했던 박물관의 통일신라불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

당시 최응천 교수의 논고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오른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내린 통일신라 금동불상의 전형적인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통일신라 우드야나(優鎭王)식 불상 양식을 갖췄다. 광배에는 백색 진주를 군데군데 감장(嵌裝)해 장식성을 더욱 높였다.

그는 "균형 잡힌 불신과 볼륨감 넘친 얼굴 표현은 물론이고 광배와 대좌까지 완벽하게 남아있다. 광배에 장식된 화려한 진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로써도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제작된 최고의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최응천 교수 2009년 닝보博서
통일신라 추정 아미타불상 발견
중국, 남송시대 조성 작품 고수
최근 전시서 '통일신라'로 정정
"韓불상이 中건너간 사례 인정"

그렇다면 불상은 어떻게 중국으로 갈 수 있었까. 최응천 교수는 이후 기고한 칼럼 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들을 천착했다. 그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이 교류 차원에서 보내졌던 것이 천봉탑이 중건되던 시기에 중국 불상과 함께 매납 △천봉탑이 건립될 당시에 넣어졌던 우리의 불상을 중건 당시에 다시 봉안 등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응천 교수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류 거점이었던 닝보의 불교 사원이었던 천봉탑 지궁 안에 넣어진 불전의 주인공으로 봉안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비록 한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 불상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불상도 중국에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봤다.

이 같은 논고와 칼럼들은 당시 언론들을 통해 소개됐고, 이후 중국 닝보박물관에 해당 불상이 전시관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던 중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항저우 저장성 박물관서 열린 '오대십육국시대의 불교금동조상전' 에 다시 출품된 것이 확인됐다. 최응천 교수에 따르면 해당 불상의 조성연대는 기존 남송에서 '통일신라시기(668~901)' 로 정정됐다.

동북공정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부각했던 중국 학계에서 한국 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이 조성시기를 정정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통일신라 조성을 주장한 최응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불상의 잘못된 조성 시기를 바로잡았다는 데 학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매우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다"면서 "중국불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양식이 특이했고, 중국학계가 바뀐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환수 · 방재에 최선 노력을"

문화재청 신년계획 발표… 환수기금 50억 편성

최신식 방재시스템 확대
北문화재 남북 합동 조사
미륵사지 석탑 4월 준공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3월 13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재 최신 방재시스템 보급량이 기존 69%대에서 75%로 확대되며,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긴급 매입비도 대폭 증액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 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겠다"며 신년계획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 · 전승을 위해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확대한다. 현재 3개소에 불과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32개소로 늘리며, CCTV · 적외선 감지기 등 방재시설도 현 69%에서 75%로 확대 ·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경북 봉화에 2023년까지 건립한다. 아울러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 · 인증기준을 마련하며, 전통재료를 활용하는 보수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화엄사 각황전 등 문화유산의 보수정비는 지속 · 추진한다. 20년간에 걸쳐 복원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4월 30일 준공식을 마치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환수 문화재 긴급 매입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환수를 독려하기 위한 '환수보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남북 간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제9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비무장지대 문화재 현황조사, 평양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천연기념물 크낙새 공동연구, 건원릉에 함흥 억새 이식 등이 진행된다.

정재숙 청장은 "국외문화재 보호 · 활용 활성화,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 확대해 세계 속에 우리 문화유산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여성개발원 "비리 全無, 기금 온전히 보전"

조계종 포교원 '재정 부당 전출' 주장에 반박 기자회견

조계종 포교원장의 불교여성개발원장 미임명 사태로 촉발된 양측 갈등이 여성개발원의 '재정 부당 전출' 논란으로 전환된 데 대해 여성개발원은 "재정적 비리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 12일 서울 견지동 개발원 사무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조계종 포교원이 언론에 공개한 부당 전출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개발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외숙 수석부원장, 이인자 초대원장, 김인숙 3대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포교원은 3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년간 이사회 승인 없이 불교여성개발원이 (사)지혜로운여성으로 7억8356만원을 불법 전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성개발원은 "매년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해왔고, 포교원에서도 매년 1달 정도 산하단체 종무행정 지도를 하며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은 대표가 관례적으로 겸직할 뿐만 아니라 회원도 거의 동일하고,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해 재정이 통합운영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성개발원은 이어 "이 점을 고려해 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 두 이사회에서 각각 통합된 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해왔다"며 "불교여성광장기금은 모금 이후 현재까지 한 푼도 유용하지 않고 지혜로운여성 통장에 안전하게 적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개발원은 이와 함께 이사장인 지홍 스님이 4개월째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 궐위상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불자들이 총의를 모아 원장 후보로 추천한 김외숙 수석부원장의 개발원장 임명을 촉구했다.

"포교원장 주재 이사회 승인"
김외숙 원장 후보 임명 촉구
대화 통해 해결 접근 주장

김외숙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집행부를 제외하면 그동안 여성개발원장은 대부분 단수후보로 추천했다. 만약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밝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순리"라며 "개발원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는 정현 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분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정관에 대표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 조항은 없다. 하지만 대표 궐위 시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사회 관례에 따라 김외숙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여성개발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교원 측은 이사장이 개발원장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외숙 직무대행은 "개발원장 임명은 그 이전에 개발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후보추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재가 여성단체에 비구니스님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자격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개발원에서는 이미 노숙령 前원장이 임기만료 전 대표기구 회의를 통해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계속되는 포교원과의 갈등상황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지 않는다. 항상 대화를 전제로 일을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며 "포교원에서도 대화를 제안해왔다. 진정성 있는 대화자리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본격 출범

3월 9일 불암사서 창립법회 봉행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가 출범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보다 조직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3월 9일 남양주 불암사 약사전에서 '2019년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창립법회' 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새로 위촉된 홍보위원 7명이 포함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회장 박종우)가 출범했다. 소속 홍보위원 20여 명은 이후 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사는 △회칙 통과 △회장 임명 △임원 선출 △이사장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서 통과된 회칙에 따라 홍보위원들은 연간 20여 명 이상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후원 회원을 모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들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연 3회 이상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박종우 초대 회장은 "지금까지 생명나눔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적극 알리며 다른 홍보위원들과 협조해 생명나눔을 대중에 알리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무처와 위원간 가교 역할을 하며 각종 행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홍보위원회는 추후 연 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외 기간에는 △사업 지원 및 홍보 △사업 기획 △회원 연락 △회비 모금 등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하며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23년간 회원 15만 명이 동참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의미 있는 행사들에 참여해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지원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송탄 송덕사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천도의식을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는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희생한 각국의 고마운 군인도 많았습니다. 올해 본 사찰은 송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미군 전사자를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영가) 33위당 1등, 봉헌금 1만원, 영가당 10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장소 : 천태종 송탄 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입니다.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그만큼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 덕 사